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Thought of Serving Heaven within me in Dong-hak and Constitutional Human dignity

신 용 인**
Shin, Yong-In

목 차

- I. 처음에
- II. 인간 존엄성의 의미와 근거
- III. 동학의 시천주 사상
- IV. 인간 존엄성의 헌법상 의미와 법적성격
- V. 인간 존엄성과 헌법의 기본원리 등
- VI. 끝으로

국문초록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 헌법의 최고이념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데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를 통합한 홀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에서 그 의미와 근거를 찾아야 한다.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사상은 이러한 요구에 안성맞춤

논문접수일 : 2014.10.23

심사완료일 : 2014.12.09

게재확정일 : 2014.12.11

* 이 논문은 2013년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변호사·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다. 시천주 사상에 의하면 인간은 하늘을 모신 존재로서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안으로는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늘이 있고, 밖으로는 인간은 하늘로 인해 만물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늘이 있다는 것은 주체의 자유를 뜻하고, 하늘로 인해 만물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치를 뜻한다. 인간이 주체의 자유와 공동체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요, 그러한 삶이 존엄한 삶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주체와 자유의 공동체의 일치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씨올이다. 그러므로 시천주의 삶이란 곧 씨올의 삶이다. 헌법상의 인간상을 구현하는 삶이 곧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삶이다. 헌법상의 인간상은 자주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인간상을 구현하는 삶이란 시천주(씨올)의 삶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이처럼 이해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이성과 도덕성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의 최고구성원리이자 헌법의 통제적 원리이며 개인의 삶의 가치지표로서의 역할도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간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의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국가구조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가구조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최선의 구조로 짜져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가 나온다. 결국 기본권이나 국가구조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의 최고이념일 뿐 아니라 헌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원리이다. 인간의 존엄성 규정은 현행 헌법과 같이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기본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야 한다.

주제어 : 인간의 존엄성, 개인주의, 집단주의, 이성, 도덕성, 동학, 시천주, 헌법, 인간상, 씨올, 기본권, 국가구조

1. 처음에

우리 헌법은 제10조 제1문 전단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규정은 5. 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1962년 헌법을 개정할 때 신설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독일기본법 규정을 참조하여 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962. 12. 26. 제5차 개정헌법은 제8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라는 1949년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당시 어떤 이유로 인간 존엄성이 헌법에 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여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추측컨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정권 안보 및 헌법 개정 정당화 차원에서 규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와 같은 추측은 박정희 정권이 그 후 유신독재로 치달으며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우리의 경우 현대사만 보더라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독재 하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현저히 훼손되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에도 국가권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지 반 세기가 지났고 학문적으로는 헌법상의 최고이념으로까지 승화되었음에도 국가권력조차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로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아 헌법상의 인간 존엄

성 규정이 명실상부한 생활 규범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이므로 헌법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이 담겨야 한다.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찰 역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얼이 담긴 사상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인간 존엄성 규정이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 속에 깊이 뿌리내려 생활 규범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에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서구의 근대 사상을 주체적·통합적으로 소화한 사상이라고 평가 받는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사상에 근거하여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인간 존엄성의 보편화와 세속화에 대해 살펴보고, 인간 존엄성의 근거에 대한 서구의 주류적 입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유형에 따른 검토를 하고자 한다. 둘째로, 동학의 시천주 사상의 핵심내용을 살펴보고 시천주사상에서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셋째로, 동학의 시천주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 존엄성의 헌법상 의미와 법적 성격을 규명해 본다. 넷째로,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 및 국가구조와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규정이 관념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생활규범으로 작동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II. 인간 존엄성의 의미와 근거

1. 인간 존엄성의 보편화와 세속화

존엄성의 사전적 의미는 감히 범할 수 없이 높고 엄숙한 성질을 뜻한다.¹⁾ 고대 로마에서는 존엄성이란 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특별한 인물이 가지고 있던 높은 지위의 존귀함을 뜻했다. 이들의 탁월한 지위에서 기인하는 특별한 명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성이 존엄성의 토대를 이뤘다.²⁾ 예컨대 로마 제국의 초대황제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였는데 아우구스투스란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를 뜻한다. 아우구스투스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으나 그가 안토니우스와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하여 로마의 1인자가 되자 원로원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이처럼 개별적 인물의 특권과 관련된 존엄성 개념은 중세에 들어와 기독교 신학의 틀 속에서 보편화되었고 신적인 전체 질서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특권적 지위와 역할로 옮겨지게 되었다.³⁾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⁴⁾라고 나와 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⁵⁾라고 나와 있다. 중세 기독교에서는 위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인간은 비록 신의 창조물이기는 하나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신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며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지닌다고 봤다. 또한 존엄한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고 봤다.

위와 같이 보편화된 존엄성 개념은 르네상스의 과정을 거치고 근대에 들어오면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세속화되었다. ‘르네상스의 천재’로 알려진 피코 델라 미란돌라(Pico della Mirandola)는 1486년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을 저술했는데 그 글에서 그는 인간이 존엄한 이유를 인간의 자유의지와 과학적 능력에서 찾아 세속화의 길을 열었다.⁶⁾ 17세기 이후 계몽주의가 꽃을 피우면서 이성 중심의 사고가 만연해지자 인간 존엄성의 근거 역시 신적인 권위가 아닌 이성에서 찾게 되었고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을 지닌 자율적

2) Christoph Menke · Arnd Pollman, 정미라 · 주정립 옮김, 「인권철학입문」, 21세기북스, 2012, 162면.

3) Christoph Menke · Arnd Pollman, 전게서, 162면.

4) 창세기 1장 27절.

5) 창세기 1장 28, 29절.

6) Pico della Mirandola, 성명 옮김,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 경세원, 2009, 참조.

존재이므로 존엄하다고 보는 입장이 설득력을 더해갔다. 이와 같은 입장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를 들 수 있다. 칸트는 이성 에 의해 지도되는 인격체로서의 자율성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라고 했다. 즉 동물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사물은 이미 정해진 법칙에 따르고 있으나 인간 은 스스로 세운 법칙 이외에 어떤 법칙에도 따르지 않는 이성적이고 자율적 인 존재라는 점에서 존엄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 이므로 항상 목적으로 대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⁷⁾ 오늘날 서구의 주류적 입장은 칸트의 견해에 힘입어 인 간은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이성을 지닌 자율적 존재이므로 신적인 권위에 의지할 필요 없이 존엄성을 지닌다고 본다.

2. 서구의 주류적 입장에 대한 비판

위와 같이 서구의 주류적 입장은 이성을 지닌 인간은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고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우선, 이성 그 자체가 다른 동물과는 질적으로 차별성을 갖는 인간의 존엄 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크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도구 및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를 창조하 므로 동물과는 질적으로 차별된 존재라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생물학 등 현 대과학의 발전에 의해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면서 그러한 견해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우선 도구 사용의 점에 대해 살펴보면, 수달은 돌을 사 용해 조개껍질을 깬다. 갈라파고스 섬의 딱따구리는 선인장 가시를 사용하여 나무 틈 속에 있는 벌레를 파먹는다. 침팬지는 개미를 잡을 때 개미집을 잘 쑤시기 위해 나뭇가지를 다듬고, 나뭇잎을 진흙바닥의 깔개로 쓴다. 또한 물을 저장·운반하기 위해 일종의 나뭇잎 스펀지를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만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⁸⁾ 다음으로 언어 사용의 점에 대해 살펴보

7) Immanuel Kant, 백종현 옮김,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2009, 359~380면 참조.

면, 돌고래나 고래도 바다 속에서 음파를 이용한 복잡하면서도 효과적인 언어 체계를 사용한다. 벌조차 날갯짓 모양과 속도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이처럼 동물도 나름대로의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또한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은 청각장애인의 수신호인 미국식 수화를 배울 능력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⁹⁾ 나아가 문화의 점에 대해서 보면, 동물의 세계에도 문화의 일종인 놀이가 있다. 영장류와 같이 큰 뇌를 가지는 척추동물의 경우 놀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예컨대 탄자니아의 마할레산맥에 사는 침팬지들은 '나뭇잎더미 당기기'라 불리는 놀이를 한다.¹⁰⁾ 동물의 놀이는 큰 뇌를 가진 척추동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워싱턴 동물원의 돼지얼굴거북의 경우 사육사가 갈색 공, 오렌지 공, 루프 등 무엇이든 새로운 사물을 넣으면 그것을 가지고 논다.¹¹⁾ 또한 동물에게도 한정적으로나마 문화 전승이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사례도 있다.¹²⁾ 따라서 문화를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특징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 이성을 근거로 인간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에는 동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속성을 인간에게만 부여하려고 하는 인간중심주의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인간중심주의란 기계론적·원자론적 세계관¹³⁾을 바탕으로

8) 박홍순, 「히스토리야 대논쟁 4」, 서해문집, 2009, 19~21면.

9) 박홍순, 전계서, 23면.

10) 나뭇잎더미 당기기 놀이의 모습은 이렇다. 침팬지들은 산의 경사면을 내려갈 때, 때때로 뒷걸음질을 하며, 손에 가득 나뭇잎을 끌어당긴다. 그 후 자리에 멈추고는 모은 나뭇잎더미위를 걸어가거나 공중제비를 하여 넘어간다(Lee Alan Dugatkin 지음, 유정철 외 옮김, 「동물행동학」, 범문에듀케이션, 2012, 490면 참조).

11) 1950년대 과학자들은 일본의 코시마 섬에 살고 있는 일본 짧은꼬리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원숭이는 고구마를 좋아했으나 모래가 묻은 것은 싫어했다. 과학자들은 모래 속에 고구마를 파묻어 놓고 원숭이의 행동을 관찰했다. '이모(Imo)'라는 원숭이가 한 살이 되었을 때 고구마에 묻은 모래를 없애기 위해 고구마를 먹기 전에 물에 고구마를 씻었다. 이처럼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는 것은 원숭이 집단에서는 단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는 새롭고 창조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나 일단 이모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기 시작하자 섬의 원숭이들은 이모의 행동을 습득하여 하나둘씩 고구마를 씻어먹게 되었다. 이모의 집단에 속한 어린 원숭이들도 이모의 행동을 습득한 어미를 관찰하면서 고구마 씻기를 학습하게 되었다. 결국 코시마 섬의 모든 원숭이들이 모래가 묻은 고구마를 물에 씻어서 더 맛있게 먹게 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Lee Alan Dugatkin 지음, 유정철 외 옮김, 전계서, 488면 참조).

12) Lee Alan Dugatkin 지음, 유정철 외 옮김, 전계서, 158면 참조.

13) 기계론적·원자론적 세계관이란 주관과 객관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 사고에

로 하여, ① 인간은 이성적 사유를 하는 유일한 존재로서 다른 생물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② 자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자연 고유의 가치는 인정될 수 없으며, ③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함으로써 물질적인 진보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하게 되면 인간이 갖는 존재적 소중함과 반대로 다른 생명체에게는 기껏해야 간접적인 혹은 이차적 가치만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들이 인간에게 중요하거나 가치가 있을 때에 한해서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다른 동물의 가치는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¹⁴⁾ 이러한 인간중심주의는 개발을 명분으로 한 무제한적인 생태계의 파괴를 정당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타의 생물 종은 물론 인류의 멸종을 초래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셋째,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이므로 존엄하다는 명제는 우리 민족에게는 별다른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 민족은 서구의 계몽주의시대처럼 이성 중시의 사고가 만연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진 적도 없고,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하는 문화풍토라 자율성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또한 풍류와 해학을 즐기고 신명이 나와 일이 되는 우리 민족의 정서상 냉철한 이성은 오히려 비인간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도 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정서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는 말에 공감을 크게 느끼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 등 유구한 인본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백성은 하늘이다'라는 말이 단적으로 드러내듯이 사람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풍토가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조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슴 깊이 받아들일 마음바탕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인간 존엄성의 근거로 이성과 자율을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공감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기초를 두고 있는데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고 물질은 개별적이고 독립된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계적인 인과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기계론적·원자론적 세계관은 자연의 변화나 사회의 진보를 분리된 개체들 간의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쟁적이다.

14) 김종엽, "인간존엄성"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47집, 한국현상학회, 2010, 52면.

3. 문화유형에 따른 검토

(1)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유형

인간과 동물이 질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이성을 근거로 인간 존엄성을 이끌어내는 서구의 주류적 입장은 보편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이므로 존엄하다는 명제가 서구의 주류적 입장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한편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제가 왜 충분한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문화유형 차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문화유형을 개인주의-집단주의로 분류하여 비교 연구하는 체계는 Triandis에 의해 문화비교연구의 핵심차원으로 부각된 이후 오늘날 문화비교 연구의 기본 틀이 되고 있다.¹⁵⁾ 개인주의 문화는 내집단과의 거리 두기, 자기 이익 추구하고 경쟁 및 개인의 독립성·독특성이 강조되는 문화라면 집단주의 문화는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와 가족 통합, 내집단 성원들과의 연계성 및 상호 의존성, 내집단에 대한 관심·배려·헌신이 강조되는 문화이다.¹⁶⁾ 일반적으로 서구의 지배적인 문화유형은 개인주의인 반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동양의 지배적인 문화유형은 집단주의라고 본다.¹⁷⁾ 이와 같은 문화유형의 차이가 인간관의 차이를 가져오고 인간존엄성의 근거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달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먼저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 인간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문화와 인간관을 살펴본 다음 두 문화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간존엄성의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 인간관

서구의 개인주의는 고대 희랍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15) 조궁호, 「한국인 이해의 개념들」, 나남출판, 2003, 105면.

16) 김문조 외, 전계서, 155면.

17) 조궁호, 전계서, 106면.

인간을 독특한 특성과 목표를 가진 상호 개별적인 존재로 파악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했다.¹⁸⁾ Richard E. Nisbett에 따르면 그리스의 자연환경은 높은 산으로 막힌 좁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무역이 중요한 산업수단이 되었고 도시 사이의 이주와 교역이 활발했다. 또한 그리스의 정치체제는 도시국가와 공화정치였으므로 당시 시장이나 공회에서 벌어지는 자유로운 논쟁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이나 안정적인 공동체가 절실하지 않았고 개인들은 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 영향으로 그리스인들은 사람이나 사물을 파악할 때 그것이 속한 전체 맥락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보다는 사람 자체, 사물 자체에 주의를 돌려 현상의 원인을 설명할 때에도 사물 자체의 내부 속성을 주로 고려했다. 세상은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물의 행동은 그 사물의 내부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¹⁹⁾ 그런 환경과 사고방식이 개인주의를 발달시킨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서구인들은 사회는 독립적인 개인들을 기본 단위로 하여 구성되는 복수적인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식해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²⁰⁾ 그 후 서구의 개인주의는 상호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인 개인이 갖는 천부적인 자유와 권리, 그리고 보편적인 이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이념에서 그 절정을 맞게 되었다.²¹⁾ 이처럼 개인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서구의 인간관을 살펴보면 인간을 원자화된 개인으로 보고, 인간의 본질을 이성에서 찾는다.²²⁾ 이성이야말로 동물과 다른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서구에서는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이성에서 찾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문화와 인간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동양의 지배적인 문화유형은 서구와 같은 개인주의

18) Richard E. Nisbett 지음, 최인철 옮김,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4, 28면.

19) Richard E. Nisbett 지음, 최인철 옮김, 전게서, 190~194면.

20) 김문조 외, 「한국인은 누구인가」, 21세기북스, 2013, 156면.

21) 김문조 외, 전게서, 156면.

22) 한자경, 「동서양의 인간 이해」, 서광사, 2001, 120면.

라기보다는 유학사상에 뿌리를 둔 집단주의이다.²³⁾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혼재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전반적으로 집단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²⁴⁾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문화유형으로 집단주의를 손꼽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처럼 집단주의가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문화유형이 되기까지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 Richard E. Nisbett에 따르면 고대 중국의 자연환경은 넓고 비옥한 평원으로 이뤄져 농경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농경민들에게는 이웃과 화목한 삶을 통한 협동이 중요했다. 관개공사의 경우 화목과 협동의 필요성은 더욱 컸고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발달시켰다. 그러다 보니 고대 그리스와는 달리 문화적 동질성이 매우 강했다. 그런 영향으로 중국인들은 사람이나 사물을 파악할 때 사람 자체, 사물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기 보다는 그것이 속한 전체 맥락과의 관계를 주로 고려했다. 즉 이 우주는 독립적이고 불연속적인 원자들의 결합이 아니라 연속적인 관계들의 유기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현상의 원인을 설명할 때도 개별적인 개체들의 내부 속성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그 개체가 속한 전체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려고 한다.²⁵⁾ 그런 환경과 사고방식이 집단주의를 발달시킨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아 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호 연관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의 원형인 가족과 같은 1차 집단을 기본 단위로 하여 구성되는 사회 자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여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²⁶⁾ 그 결과 서구와는 달리 인간을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부분으로서의 개인으로 보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인이 아닌 공인의 마음과 인격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²⁷⁾ 또한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 아닌 인(仁)·의(義)·예(禮)·지(智)의 도덕성에서 찾는다.²⁸⁾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23) 조궁호, 전계서, 107면.

24) 조궁호, 전계서, 113면.

25) Richard E. Nisbett 지음, 최인철 옮김, 전계서, 190~194면.

26) 김문조 외, 전계서, 156면.

27)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7, 129면.

28) 한자경, 전계서, 158면.

인간존엄성의 근거로 이성보다는 도덕성을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성을 지닌 관계적 존재라고 할 때 보다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4) 홀론과 인간 존재의 양면성

모든 사물은 독립적인 전체로서만 존재하지도 않고, 종속적인 부분으로서만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물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전체인 동시에 종속적이고 유기적인 부분으로 존재한다. 예컨대 온전한 원자 하나는 하나의 온전한 분자의 부분이며, 그 온전한 분자 하나는 하나의 온전한 세포의 부분이고, 그 온전한 세포 하나는 하나의 온전한 유기체의 부분이라는 등등이다.²⁹⁾ Arthur Koestler는 이처럼 사물을 전체인 동시에 부분으로도 묘사될 수 있는 까닭에 사물을 마치 로마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의 야누스와 같은 실재라고 하였다. 그는 사물의 이러한 야누스적인 실재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 홀론(holon)이라는 용어를 창안하였는데, 홀론은 그리스어로 전체라는 의미를 가진 홀로스(holos)와 조각이나 부분을 뜻하는 온(on)을 합성한 용어이다.³⁰⁾ 즉 홀론이란 전체인 동시에 부분이라는 뜻이다. 그가 창안한 홀론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존재의 실상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아서 케슬러에 의하면 인간은 홀론이다. 인간이 홀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의 전체로서 독립성을 가진 존재인 동시에 사회의 부분으로서 종속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홀론인 인간은 개인주의적인 존재이자 집단주의적인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모두 이중문화적이다.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려는 독립성과 다른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상호의존적인 특징이 혼재한다. 이 중 어떤 특성이 더 강하게 부각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적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³¹⁾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보다 보편적인 설득력을 지니고자 한다면 이러한 인간 존재의 양면성

29) Ken Wilber, *A Brief History of Everything*, Boston : Shambhala, 2000, p.17.

30) Arthur Koestler 지음, 최효선 옮김, 「야누스」, 범양사출판부, 1994, 47면.

31) Richard E. Nisbett 지음, 최인철 옮김, 전게서, 229면.

과 인간 문화의 이중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즉 이성과 도덕성 모두에서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도 도덕성 역시 동물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성이 될 수 있으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지만 서구의 주류적 입장의 단점인 인간중심주의와 문화유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한편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 중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사상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탁월함이 있다. 인간 존재의 양면성과 인간 문화의 이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논리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동학의 시천주 사상을 기초로 하여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이끌어내 보고자 한다.

Ⅲ. 동학의 시천주 사상

1. 우리 민족의 '한' 사상

우리 민족은 수천, 수만 년 전부터 해 뜨는 동쪽, 밝고 따뜻한 나라, 풍성한 생명의 나라를 찾아 길을 떠나 중앙아시아의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 북몽골족이 세력을 떨쳤던 바이칼 호를 거쳐 동북아 지역으로, 다시 만주를 거쳐 한반도에까지 이르렀다. 밝고 따뜻한 삶을 향한 이러한 오랜 순례의 길에서 우리 민족은 깊은 생명사랑과 강인한 생명력을 익혔다.³²⁾ 순례의 길에서 체득된 우리 민족의 이러한 자질은 동북아시아의 풍요한 자연조건과 경제 사회적인 생활양식을 통해 닦여졌다. 고대 한민족은 동북아시아의 비교적 광활한 영역에 걸쳐 살아왔다. 하천이 비교적 알맞게 발달한 유역에다 토질도 대체로 비옥하다. 온대 지방이므로 철따라 만물의 성숙과 결실이 다채롭고 풍성하다. 이 같은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민족은 생명과 평화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발전시켰고 마을 공동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지혜와 능력을 익혔다.³³⁾ 그러한 까닭에 고대 중국에서는 한민족을 동이(東夷)라 부르며 찬사를 보냈다. 「후한

32) 이경숙 외 2인, 「한국생명사상의 뿌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39면.

33) 이경숙 외 2인, 전거서, 41면.

서(後漢書)」「동이전(東夷傳)」을 보면 동이의 뜻을 “동방을 이(夷)라 하며 이(夷)는 근본(根本)이다. 어질고 착하며 만물을 낳게 하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나온다는 말이다. 그러한 까닭에 타고난 바탕(天性)이 부드럽고 순리에 따라 살며 도(道)로 다스리기가 쉬우며 군자가 있어 죽지 않는 나라이다.”라고 했고, 노자(老子)는 ‘큰 도(道)가 성한 것(大道甚)’을 이(夷)라고 풀이했다.³⁴⁾ 또한 「예기(禮記)」「왕제편(王制篇)」에서는 서유, 남만, 북적을 비난하면서, 동이는 “어질어서 만물을 살리기를 좋아한다.”고 했다.³⁵⁾

생명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단어가 ‘한’이다. 우리 민족은 한겨레이고, 우리나라는 한국이며, 우리 음식은 한식이고, 우리글은 한글이다. ‘한’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인의 삶과 정신을 받쳐 주고 있는 바탕인 것이다. ‘한’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나 그 기원을 ‘크다, 하나’에서 찾을 수 있다. 이윤재는 「한글강의」에서 “한글의 ‘한’은 우리의 고대 민족의 이름인 한족(桓族)이나 한국(桓國)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한’의 기원은 크다(大) 하나(一)라고 한다”고 했다.³⁶⁾ 한을 크다(大)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없으며 시간적 제한도 받지 않는 큰 하나로서 천지 만물을 포괄한다는 뜻이다. 또 하나(一)로 해석할 경우 이것은 천지 만물 근원이 되는 것으로 모든 사물이 이로부터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은 크고 높다는 뜻으로 쓰이는 외에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라는 의미로도 쓰인다.³⁷⁾

2. 한과 시천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 ‘한’은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³⁸⁾ ‘큰 하나’를 뜻하는 ‘한’은 하늘과 연결된다. 큰+하나=하늘(大+一=天)이다.³⁹⁾ 하늘은 한

34) 신완순, “후한서 동이전을 통해 본 고조선 역사”, 『통일한국』 제302호, 평화문제연구소, 2009, 86면.

35) 이경숙 외 2인, 전계서, 40면.

36) 이근철, 「한사상과 문화」, 엠-에드, 2003, 28면.

37) 이근철, 전계서, 31, 32면.

38) 박재순, 「한국생명신학의 모색」, 한국신학연구소, 2000, 44면.

39) 박재순, 「함석헌의 철학과 사상」, 한울아카데미, 2012, 173면.

없이 깊고 무한히 넓다. 그런 하늘의 속성을 잘 담아낸 사상이 바로 동학의 시천주 사상이다.

동학은 조선말기인 1860년 수운 최제우의 하느님 체험에 의해 창도된 민족 종교다. 당시 조선사회는 유교적 신분체제가 모순을 드러내며 삼정문란 등 부정부패가 극심했고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아 몹시 혼란스러웠다. 수운은 이처럼 세상이 어지러운 까닭은 사람들이 본래의 마음을 저버린 데 있다고 봤다. 그는 천리와 천명을 따라 살며 본래의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어지러운 세상을 끝내고 후천개벽의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동학을 창도했다. 수운이 창도한 동학의 핵심사상은 시천주(侍天主)라는 단어에 집약되어 있다. '시천주'이라는 용어는 시(時)+천(天)+주(主)가 합성된 개념이다. 하늘(한울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다. 수운은 인간은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떠나서 한울님을 생각할 수 없으며, 한울님의 뜻도 인간을 통해서만이 구현될 수 있다고 봤다.⁴⁰⁾ 시천주에 의하면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한울님을 모심에 있다는 것이다.

시천주 사상은 조선조 봉건 사회의 신분제를 부정하고 모든 인간은 하늘을 모시고 있는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점을 민중들에게 일깨워주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불러 일으켰고, 나아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자못 크다.⁴¹⁾

3. 시천주의 의미

시천주에서는 모실 시(侍) 자의 의미를 제대로 풀이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운은 시(侍)를 '내유신령 외유기화 일세지인 각지불이(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라고 풀이했다.⁴²⁾

내유신령이란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신령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신령이란 인간 존재의 내적 성찰을 통해 찾아낸 참된 주체인 본성을 말한다.⁴³⁾ 내유

40) 윤석산, 「동학교조 수운 최제우」, 모시는 사람들, 2004, 215면.

41) 신용인, 「생명평화의 섬과 제주특별법의 미래」, 도서출판 각, 2013, 157~158면.

42) 「동경대전」 “논학문”.

신령은 큰 하나인 하늘 중 하나(모든 것의 근원)를 의미한다.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 들어갈 때 만날 수 있는 한없이 깊은 하늘이 바로 신령인 것이다. 심리학적으로는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의 자기(Self)를 뜻하며, 종교적으로는 내 안의 예수 그리스도, 불성(佛性) 또는 본연지성(本然之性)을 일컫는 것이다.⁴⁴⁾ 내유신령이 의미하는 바는 참된 가치나 진리는 내 밖의 초월적인 그 무엇이나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구원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⁴⁵⁾ 참다운 자유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있는 참된 주체인 본성을 진정으로 깨닫고 만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理性)과 영성(靈性)의 결합이 내유신령이다. 따라서 내유신령이란 주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로운 삶을 의미한다.

외유기화란 밖으로는 어떠한 신비한 기운과 동화일체(同化一體)가 된다는 뜻이다.⁴⁶⁾ 모든 존재가 하나의 지극한 기운(至氣)에 의해 그물의 그물코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기화의 구체적인 모습은 인간생명과 대자연과의 유기체적 공동성, 상호의존성, 상호순환침투적 창발성, 과정적 진화성을 모두 포함하는 다의적 의미를 지닌다.⁴⁷⁾ 이처럼 우리가 그물의 그물코처럼 겹겹으로 무궁무진하게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이루어지고 활동하는 총체적인 생명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사실⁴⁸⁾을 깨달을 때 만나는 무한히 넓은 하늘이 바로 기화다. 큰 하나의 하늘 중 전자(무한히 큰 것)가 기화인 것이다. 기화가 되면 타자와도 완전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게 된다. 외유기화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삶은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덕성(道德性)과 영성(靈性)의 결합이 외유기화이다. 따라서 외유기화란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의롭고 평등한 삶을 의미한다.

일세지인 각지불이란 온 세상의 사람이 각기 깨달아 옳기지 않는 것이라는

43) 오문환, 「해월 최시형의 정치사상」, 모시는 사람들, 2003, 82면.

44) 신용인, 전계서, 158면.

45) 이명남, 「동학의 인간관」, 「동학과 동학경전의 재인식」, 신서원, 2001, 201면.

46) 윤석산, 전계서, 217면.

47) 김경재, 「수운의 시천주 체험과 동학의 신관」, 「동학연구」 제4집, 한국동학학회, 1999, 31면.

48) 도법스님,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 불광출판사, 2008, 56면.

의미이다.⁴⁹⁾ 내유신령의 영적 본성과 외유기화의 공동체성으로부터 한 걸음도 옮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⁵⁰⁾ 각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구체적 인격체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근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일세지인 각지불이인 것이다.⁵¹⁾ 각지불이의 요체는 수심정기(守心正氣)와 성경신(誠敬信)이다. 수심정기란 마음을 닦아내어 지키고 몸의 기를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인간은 누구나 하늘마음을 타고 났으므로 그대로 지키기만 힘쓰면 되는 것이고, 또한 혼연일기를 모시고 있으니 그 기에 통하여 올바르게 활동하면 되는 것이다.⁵²⁾ 성경신이란 자기 안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하고(信), 정성을 다해 하느님을 모시는 마음을 잃지 않고(誠), 하느님과 사람, 만물을 공경해야(敬) 한다는 것을 뜻한다.

4. 함석헌의 씨올사상과 시천주

한국의 간디라 불리는 함석헌은 독재정권에 치열하게 저항했던 민주투사였던 동시에 동서양의 정신과 문화를 통합하는 바탕 위에 우리 민족의 얼을 드러낸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사상가였다. 그의 사상은 씨올이라는 단어로 응축하여 표현된다. 씨올은 민중, 국민의 순 우리말로 다석 유영모가 유학의 경전 『대학(大學)』에서 나오는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중 ‘在親民(재친민)’의 ‘民’을 씨알로 해석하여서 “씨알어빔이 있다”로 풀이한데서 유래한다.⁵³⁾ ‘씨알어빔’이란 씨알(민중)을 어버이같이 뵈듯 모시고 섬긴다는 뜻이다. 그 후 함석헌은 씨알이라는 말을 씨올로 바꿔 부르며 독창적인 씨올사상을 전개했다.

씨올은 개체이면서 전체다. 씨올 하나 속에 나무 전체가 들어 있고, 나무속에 수많은 씨올이 열려 있다. 그래서 씨올은 ‘홀로’이면서 전체를 안고 있

49) 윤석산, 전계서, 219면.

50) 오문환, 전계서, 100면.

51) 오문환, 전계서, 80면.

52) 오문환, 전계서, 101면.

53) 김경재, “새로운 문명의 길잡이, 함석헌의 씨올사상”, 『환경과생명』 제62집, 환경과생명, 2009, 159, 160면.

다.⁵⁴⁾ 씨올은 개체이면서 전체 생명이고 영원한 '나'다.⁵⁵⁾ 씨올은 스스로 하는 생명, 자발적 주체성을 나타낸다. 씨올의 삶은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사는' 못 생명의 존재와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며 받아준다. 그러므로 스스로 사는 삶은 더불어 사는 삶이다. 씨올은 옹근 하나이면서 못 씨올들과 더불어 산다.⁵⁶⁾ 씨올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권력이나 부와 같은 겉질이 아니라 생명과 정신의 속 알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와 사회의 참된 주체는 생명과 정신의 속 알을 간직한 씨올(민중)이다.⁵⁷⁾

씨올은 깨기 전에는 개체에 불과하지만 깨면 전체다. 씨올이 개체로 머물면 무력하지만 전체의식을 가지면 역사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⁵⁸⁾ 함석헌은 앞으로의 세계는 어쩔 수 없이 유기적인 사회, 전체 사회가 돼서 미워도 고와도 한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렇지 못하면 전체가 멸망하게 돼 있다고 했다.⁵⁹⁾ 세계가 한데 살기 위해서는 당파주의와 집단주의를 배격해야 하는데 이는 씨올이 믿음으로 전체의 자리에 서서서 전체를 느끼고 생각하고 전체로서 행동할 때 가능하다. 전체의 자리에 서면 원수가 따로 없다. 서로 하나 됨에 이르는 사랑과 평화의 길이 있을 뿐이다. 사랑과 평화의 길은 물욕과 집착에 사로잡힌 자기를 깨트리는 고통 속에서 열린다.⁶⁰⁾ 억압받고 고통 받는 씨올은 생각함으로써 주체와 전체가 하나로 되는 구원과 평화의 삶의 근원에 이른다. 함석헌은 인류 생명의 운명이 "생각하는 씨올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했다.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이다. 생각함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사람의 알맹이가 영근다.⁶¹⁾

흥미로운 점은 함석헌이 동학의 가치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함석헌은 동학은 미신적 요소가 있어 진보적이라 할 수 없고 민중을 깨우지도 못했다고 평

54) 박재순, 전계서(주 24), 91면.

55) 박재순, 전계서(주 24), 95면.

56) 박재순, 전계서(주 24), 91, 92면.

57) 박재순, 전계서(주 24), 92면.

58) 박재순, 전계서(주 24), 95면.

59) 함석헌,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함석헌 전집 8), 한길사, 1984, 251면.

60) 박재순, 전계서(주 24), 95면.

61) 박재순, 전계서(주 24), 97면.

가절하 했다.⁶²⁾ 그럼에도 함석헌의 씨올과 동학의 시천주는 유사한 사유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함석헌은 씨올의 ‘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올에서 ‘ㅇ’은 극대 혹은 초월적 하늘을 표시하는 것이고, ‘ㄴ’은 극소 혹은 내재적 하늘, 곧 자아를 표시하는 것이며, ‘ㄹ’은 활동하는 생명의 표시입니다.”⁶³⁾ 이를 동학의 시천주사상에 대비해서 보면 씨올의 ‘ㄴ’은 내유신령, 즉 주체적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ㅇ’은 외유기화, 즉 공동체적 하늘을 말하는 것이며, ‘ㄹ’은 각지불이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씨올의 ‘ㄴ’은 주체적인 자유의 삶을, ‘ㅇ’은 공동체적인 평등의 삶을 각각 말하는 것이며, ‘ㄹ’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둘의 사유구조가 유사한 이유는 둘 다 ‘한’이라는 우리 민족의 마음바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동서양의 정신과 문화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5. 헌법상의 인간상과 시천주

인간의 존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상의 인간상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헌법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존엄을 실현시키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⁶⁴⁾

헌법이 그리는 인간은 사회공동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절되어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孤立主義的 人間像)도 아니고, 공동체나 국가나 집단의 부속품으로서 존재하여 자유와 자율에 따른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공동체 또는 국가권력의 객체로 전락한 인간(全體主義的 人間像)도 아니다.⁶⁵⁾ 헌법상의 인간상은 자주성을 갖는 고유한 인격의 주체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개성신장을 통해서 모든 사회구성원과 더불어 우리 사회 공동 질서를 함께 형성해 나갈 사명감을 가진 자주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이다.⁶⁶⁾ 헌법재판소도 헌법상의 인간상에 대해 “우리 헌법질서가 예정하는 인

62)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한길사, 2011, 380~381면.

63) 「씨올의 소리」 홈페이지 <http://www.ssialsori.org/ssial/sub1.php>

64)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1, 559면.

65)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399면.

간상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 인바, 이는 사회와 고립된 주관적 개인이나 공동체의 단순한 구성분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관련되고 공동체에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고유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인격체라 할 것이다.”라고 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를 하고 있다.⁶⁷⁾

이처럼 헌법상의 인간상은 자주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인간이다. 헌법은 인간을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상의 인간상은 시천주사상과도 부합한다. 시천주사상은 인간의 영성(靈性)을 전제로 하여 인간이란 이성을 가진 자주적·주체적인 존재(내유신령)인 동시에 도덕성을 가진 관계적·공동체적인 존재(외유기화)로 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을 이성과 도덕성 모두에서 찾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통합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이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롭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천주(씨울)의 방식을 통해 실현된다.

Ⅳ. 인간 존엄성의 헌법상 의미와 법적 성격

1. 인간 존엄성의 헌법상 의미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존엄과 가치를 구별하여 인간의 존엄이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인격 그 자체이고 인간의 가치란 인간의 독자적 평가라고 보는 견해,⁶⁸⁾ 존엄과 가치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주체성⁶⁹⁾ 또는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윤리적

66)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1, 518면.

67)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결정.

68)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1994, 230면.

6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77면.

가치⁷⁰⁾ 또는 인간이 지니는 윤리적 가치로서 그 자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정체성과 고유한 가치⁷¹⁾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외국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human dignity로 지칭하는데, 우리말의 존엄과 가치는 어의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헌법적으로는 human dignity를 의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동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⁷²⁾ 존엄과 가치를 동일적으로 파악하는 견해에서는 대체로 존엄성을 인격성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인격성이란 무엇이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성에 기초를 둔 자율성을 인격의 핵심으로 보고 인격체의 자율성에서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구하는 서구의 주류적 입장을 자명한 것으로 간주한 까닭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도 일부 학자들이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은연 중 집단주의 사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인간상은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핵심내용으로 자기결정권을 들고 있다.⁷³⁾ 이 또한 서구의 주류적 입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시천주 사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거를 주체성과 공동체성의 영적인 상징인 하늘에 두고 있다. 인간은 하늘을 모신 존재로서 인간 안에 하늘이 있고(내유신령), 인간은 하늘로 인해 만물과 연결되어 있으므로(외유기화) 존엄하다. 인간 안에 하늘이 있기에 인간의 본성은 이성과 영성으로 이뤄져 있고 인간은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 점에서 인간존엄성의 근거를 이성에서 찾는 서구의 개인주의와 상통한다. 또한 인간은 하늘로 인해 만물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본성은 도덕성과 영성으로 이뤄져 있고 인간은 관계적이고 상호배려의 도덕적인 존재이다. 이 점에서 인간존엄성의 근거를 도덕성에 찾는 동양의 집단주의와 상통한다. 이처럼 시천주 사상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를 통합하여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즉 시천주사상으로부터 인간은 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이자 도덕성을

7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2, 330면.

71) 정종섭, 전게서, 400면.

72) 정종섭, 전게서, 400면.

73) 헌재 2004. 4. 29. 2003헌바118, 판례집 16-1, 528 (534면) 참조.

지니는 관계적 존재이므로 존엄하다는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이성과 도덕성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2. 인간 존엄성의 법적 성격

(1) 헌법의 최고이념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 헌법의 최고이념이라는 점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학자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다른 헌법규정을 기속하는 최고의 헌법원리⁷⁴⁾이며, 헌법이념의 핵심⁷⁵⁾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나라 헌법질서의 이념적·정신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 헌법질서의 바탕이며 우리 헌법질서에서 절대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적인 공감대를 뜻하게 된다.⁷⁶⁾

이처럼 우리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은 한편으로는 헌법의 최고구성원리로,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의 통제적 원리로 나타난다.⁷⁷⁾

헌법의 최고구성원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은 첫째로, 모든 국가 활동의 목표를 지시하는 정향원리(定向原理)이고, 둘째로, 국가는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주며, 셋째로, 모든 헌법조항과 법령의 효력이 문제될 때 그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기준이 되고, 헌법조항이나 법령 등 법규범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의 근거가 된다.

헌법의 통제적 원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작용의 궁극적 한계를 설정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배제하거나 훼손하는 헌법 개정이나 기본권 제한은 절

74) 헌재, 1992. 10. 1. 91헌마31 결정.

75) 헌재, 1992. 4. 14. 90헌마82 결정.

76) 허영, 전계서(주 68), 515~516면.

77) 계획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법학논집」 32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96, 313~314면.

대로 허용될 수가 없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우리 헌법 규정이 헌법 개정의 한계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⁷⁸⁾

또한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에 대해서는 삶의 가치지표로서의 역할도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시천주(씨올)의 삶을 영위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된다고 본다. 인간의 존엄성은 이성과 도덕성, 영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시천주(씨올)의 삶을 실천할 때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시천주(씨올)의 삶을 통해 삶의 가치지표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시천주(씨올)의 삶은 국가 주도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국가가 개인에게 시천주(씨올)의 삶을 강요한다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개인의 주도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다.

(2) 기본권성 여부

우리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규정이 기본권성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 규정은 주기본권이라는 주관적 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긍정설⁷⁹⁾과 인간의 존엄성 규정은 구체적 기본권을 보장한 조항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고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 되는 객관적 헌법원리를 규범화한 것이라는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⁸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여,⁸¹⁾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격권의 근거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인간 존엄성의 독자적인 기본권성을 인정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⁸²⁾

78) 허영, 전계서(주 72), 332면.

79) 김철수, 전계서, 232면.

80) 정종섭, 전계서, 378면.

81)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결정.

긍정설의 입장에 서게 되면 인간의 존엄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독자적인 기본권성을 인정하여 공권력에 의한 존엄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를 인정할 실익은 사실상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것은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명·신체의 침해나 행동의 자유 침해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생명·신체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떠나 인간의 존엄권의 침해를 별도로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⁸³⁾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데 긍정설의 입장에 서면 인간의 존엄성도 기본권의 일종이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가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성보다도 상위에 놓이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나아가 인간 존엄성의 핵심은 이성과 도덕성인데 이성과 도덕성 그 자체가 기본권성을 갖는 다기보다는 기본권의 전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본권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IV.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 국가구조

1.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

기본권은 인권사상에서 유래한다. 인권이란 천부인권사상을 바탕으로 성립한 개념으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천부적이고 생래적인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실정법적 권리인 기본권이 된다.⁸⁴⁾ 기본권 중에는 생래적인 권리도 있으나 국가내적인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래적이고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과는 내용상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엄격

82) 허영, 전계서(주 68), 521면.

83) 허영, 전계서(주 68), 520~521면.

84)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09, 8면.

히 본다면 기본권과 인권은 구별된다.⁸⁵⁾ 그러나 기본권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양자를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이성과 도덕성을 의미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기본권이다. 누구에게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증진될 때 이성과 도덕성, 영성에 바탕을 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이 가능해지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과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다.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최고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찾아야 하고, 모든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느냐와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도출된다. 그런 까닭에 헌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은 편의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청구권, 정치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으로 구성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인간의 존엄, 즉 자유와 평등을 실천하는 시천주(씨울)의 삶을 구현하기 위한 포괄적 기본권이다. 평등권이란 모든 생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데 있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기본권이다. 평등권은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인 동시에 기본권 실현의 방향을 제시한다.⁸⁶⁾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신적 바탕을 이루는 기본권으로 인신의 자유, 생활의 자유, 정신의 자유로 구분될 수 있다. 인신의 자유에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신체의 자유 등이 있고, 생활의 자유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이 있으며, 정신의 자유에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있다. 청구권은 권리보장적 기본권으로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이 있다. 정치적 기본권은 정치생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정치적 자유, 선거권, 공무담임

85) 정종섭, 전게서, 2010, 282면.

86) 허영, 전게서(주 68), 529면.

권 등이 있다. 경제적 기본권은 경제생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생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보건권 등이 있다.

모든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 그러한 제한은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상 최고이념의 하위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인간 존엄성의 내용을 이루는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도덕성이 결여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는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도덕성을 갖춘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 시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수 없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

2.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구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최고이념은 기본권 보장 및 증진을 통해 구현된다. 그런데 기본권은 그냥 보장되거나 증진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힘(권력)이 필요하다. 이에 헌법은 기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국가기관을 구성·조직하고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⁸⁷⁾ 따라서 국가기관은 기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국가기관의 존재 목적은 기본권 보장 및 증진에 있는 것이다. 헌법은 이를 위해 제10조 후단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의 경우 통치

87) 이는 법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이해방식인 사회학적 모델, 규범학적 모델 중 후자를 따르는 관점이다. 규범학적 모델이란 법이 국가보다 앞서 존재하고 국가는 법에 의해 비로소 구성되고 조직된다는 이해방식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준일, 「헌법학 강의」, 홍문사, 2011, 785면 참조.

구조를 통해 실현하려는 목표가 기본권의 보장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민주 공화제적인 국가체제도 동시에 그 실현목표로 하고 있다는 반론이 있다. 민주 공화국이라는 국가적 공동체가 존속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기본권보장체계만이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존립할 수 있을 것처럼 인식하는 발상과 논리는 비현실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허구적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⁸⁸⁾ 그러나 민주공화제적인 국가체제는 자기목적성을 갖거나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실현의 유효한 수단 내지 봉사도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기본권 실현이 목적이라면 민주공화제적인 국가체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둘을 동등한 병렬적 위치에 놓는 것은 인간과 국가를 동등시하거나 인간보다 국가를 우선시하게 되어 헌법상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또한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 '통치'라는 개념에 기초한 통치구조라는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⁸⁹⁾ 따라서 여기서는 통치구조가 아닌 국가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가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국가기관의 존재목적에 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기능적인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것이다.⁹⁰⁾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분배, 권능행사의 절차와 방법, 국가기관 상호간의 통제수단 등 국가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기본권적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찾아내야 한다.⁹¹⁾ 국가구조의 대표적인 구성 원리로는 민주공화주의에 입각한 국민주권, 대의제도, 권력분립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은 이러한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제3장에서부터 제8장까지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주권, 대의제도, 권력분립 등은 자기 목적적인 원리가 아니라 기본권의 보장 및 증진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원리임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주권, 대의제도, 권력

88) 권영성, 전계서, 729~730면.

8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2, 861면.

90) 허영, 전계서(주 72), 2012, 651면.

91) 허영, 전계서(주 72), 651면.

분립을 논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본권 실현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구조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을 위한 수단 내지 도구로 기능한다.

V. 끝으로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이고,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의 최고이념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나라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개인주의적으로만 이해하거나 집단주의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양면성과 인간 문화의 이중성을 외면하고 인간을 자주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헌법상의 인간상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이 담긴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우리 헌법이 국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 생활규범으로서의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동학의 시천주 사상은 우리 민족이 조상 대대로 숭상해 온 하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인간을 하늘과 같은 존엄한 존재로 여길 뿐 아니라 인간 존재의 양면성과 인간 문화의 이중성을 잘 반영한 인간관을 갖고 있어 인간 존엄성에 이해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에 동학의 시천주사상을 바탕으로 인간 존엄성의 의미와 근거를 탐색하고 그 헌법적 의미와 법적성격을 규명한 다음,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 국가구조와의 관계를 살펴봤다.

한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 헌법의 규정 방식은 문제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 전문에는 아예 언급조차 없을 뿐 아니라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 중 하나로 제10조 제1문 전단에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형태인 민주공화국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아닌 민주공화국이 헌법 제1조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이론적으로는 국가는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를 인간보다 우선시하는 관념이 은연 중 자리 잡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 전문에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이 아닌 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기본법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조 제1항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존엄과 가치는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헌법 제1조의 규정에 규정하게 된다면 “모든 국민은 존엄한 인간이며,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가진다. 국가는 이를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헌법 제10조 제1문은 행복추구권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계희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법학논집』 32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96, 301-327면.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김경재, “새로운 문명의 길잡이, 함석헌의 씨울사상”, 『환경과생명』 제62집, 환경과생명, 2009, 156-169면.
- 김경재, “수운의 시천주 체험과 동학의 신관”, 『동학연구』 제4집, 한국동학학회, 1999, 23-43면.
- 김문조 외, 『한국인은 누구인가』, 21세기북스, 2013.
- 김종엽, “인간존엄성”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47집, 한국현상학회, 2010, 37-67면.
-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1994.
- 도범스님,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 불광출판사, 2008.
- 박재순, 『한국생명신학의 모색』, 한국신학연구소, 2000.
- 박재순, 『함석헌의 철학과 사상』, 한울아카데미, 2012.
- 박홍순, 『히스토리야 대논쟁 4』, 서해문집, 2009.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2.
- 신완순, "후한서 동이전을 통해 본 고조선 역사", 「통일한국」 제302호, 평화문
제연구소, 2009, 86-89면.
- 신용인, 「생명평화의 섬과 제주특별법의 미래」, 도서출판 각, 2013.
- 오문환, 「해월 최시형의 정치사상」, 모시는 사람들, 2003.
- 윤석산, 「동학교조 수운 최제우」, 모시는 사람들, 2004.
- 이경숙 외 2인, 「한국생명사상의 뿌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 이근철, 「한사상과 문화」, 엠-에드, 2003.
- 이명남, "동학의 인간관", 「동학과 동학경전의 재인식」, 신서원, 2001, 193-203면.
-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09.
- 이준일, 「헌법학 강의」, 홍문사, 2011.
-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한길사, 2011.
-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1.
- 정중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 조금호, 「한국인 이해의 개념들」, 나남출판, 2003.
-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7.
- 한자경, 「동서양의 인간 이해」, 서광사, 2001.
- 함석헌,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함석헌 전집 8), 한길사, 1984.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2.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1.
- Arthur Koestler 지음, 최효선 옮김, 「야누스」, 범양사출판부, 1994.
- Christoph Menke · Arnd Pollman, 정미라 · 주정립 옮김, 「인권철학입문」, 21
세기북스, 2012.
- Immanuel Kant, 백종현 옮김,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2009.
- Lee Alan Dugatkin 지음, 유정철 외 옮김, 「동물행동학」, 범문에두케이션,
2012.
- Pico della Mirandola, 성염 옮김,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 경세원, 2009.
- Ken Wilber, *A Brief History of Everything*, Boston : Shambhala, 2000.

[Abstract]

Thought of Serving Heaven within me in Dong-hak and Constitutional Human dignity

Shin, Yong-In

Lawyer,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The human dignity is the highest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unfortunately, it has been not realized in our lives every now and then. We should find out the grounds and meanings of the human dignity in the traditional spirits of our nation and from the viewpoints integrating Western individualism and Oriental groupism. the Thought of Serving Heaven within me in Dong-hak is the very thing. According to the Thought of Serving Heaven within me, Human beings serve Heaven within them. That means Heaven is in the deepest mind of human beings, and everything in the world is connected by Heaven. So human beings have the dignity. The human dignity is realized by the act of Serving Heaven within me, saying in other words, the life of ssiol. The life of ssiol is that he or she realizes not only the freedom of the subject, but also the integration of everything in his or her life. Such life is like the style of life realizes the human dignity.. We can define the human dignity is the personality, which is looked upon as the essence of human beings, is composed of the rationality, the morality and the spirituality. The human dignity is the highest guiding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is the contro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e human dignity also roles guidelines of life. If you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dignity and Basic rights, the former is the end, while the latter are the means. Basic

rights are the instrument to realize human dignity. Governing structures of the Constitution are the instrument to realize Basic rights. So both of them are the instrument to realize human dignity. The human dignity is not only the highest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but also the core principle penetrates the Constitution all the way through. The human dignity should be provided in the Article I of the Constitution.

Key words : human dignity, individualism, groupism, reason, morality, Dong-hak, Serving Heaven within me, ssio, basic rights, governing structures, Constitution